

傳統과 現代社會

<유교전통의 挑戰>

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高 柄 翹

단순히 社会人類學분야에서의 大學者일 뿐 아니라 人類文化에 대한 가장 뛰어난 知性的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불란서의 레비·스트로스教授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초청으로 來韓하였는데 그는 座談에서 다음과 같은 意見을 披握했습니다. 즉 近世의 역사에서 두 개의 가장 큰 史實을 든다고 한다면 自己로서는 클럼버스에 의한 美洲大陸의 발견과 아시아의 精神의 發見이라는 두가지를 들 것이라 하였습니다.前者는 새로운 自然資源을 열어주었다는 點에서 그리고 後者는 새로운 精神文化의 한 큰 領域을 열어주었다는 點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文化와 文明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옮겨가고 다시 아시아 그중에도 東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人類文化의 중심이 유럽에 있었다는 유럽 중심적인 思考가 아직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精神文化에 대한 關心은 今世紀에 들어와서 유럽에서의 帝國主義的 팽창이 限界에 다다르고 戰爭과 그에 따른 精神的 混亂의 時期에도 더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유럽의 物質爲主文明을 匡正·補完할 수 있는 새로운 要素로서 아시아의 지혜와 神秘主義가 가끔 擧論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比해서 이제는 아시아의 傳統文化가 유럽文化를 代替할 수 있는 것으로 看

做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른 點입니다.

본래 近代에 들어와서 아시아가 西方의 植民地나 또는 植民地的 狀態로 떨어질 때부터 아시아의 傳統과 文化에 대한 評價는 否定的인 方向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近代的 國民 國家를 形成하지 못하고 資本主義와 産業技術을 발전시키지 못하고서 植民地로 떨어지게 된 要因이 그 傳統文化속에 內在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즉 停滯性이라든지 非合理性 專制主義 閉鎖性 및 退嬰性 그밖에 身分固定的인 價値觀이라든지 그러한 社會組織 또는 法律의 普遍性 缺如 또는 産業의 蔑視등등에 基因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 傳統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 一世紀 동안 이런 否定的인 觀念은 비단 西方사람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人 自身들에 의해서도 품어져 왔습니다. 東아시아에서는 在來의 傳統精神은 유지하면서 外部的・技術的인 面만을 西方으로부터 배움으로써 西勢에 對抗하려는 努力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령 「洋務運動」 「變法自強」 이라든지 또는 「中體西用」 「東道西器」 「和魂洋才」 등의 名稱과 理論으로 나왔지만은 모두 根本적으로는 傳統에 대한 自信의 喪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否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辛亥革命後의 中國에서 유교전통에 대한 맹렬한 批判과 否定이 知識層사이에서 크게 일어나서 혹은 雜誌의 論說로서 혹은 文學作品으로서 유교와 그 傳統에 대한 공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컨대 (陳獨秀, 吳虞, 魯迅등)의 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孔子를 崇拜하고 유교倫理를 더욱 強調하는 努力이 清末의 政府나 辛亥革命後의 袁世凱 및 康有爲 그리고 國民

黨政府에 의해서 試圖되고 또 一般民衆사이에서도 강한 유교전통이 存續되어 오기는 했지만, 一般的으로는 二十世紀에 들어와서는 유교적 理念과 倫理 그리고 그에 입각한 諸般 制度는 줄곧 衰退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겠습니다.

印度를 비롯한 西南亞 및 東南亞지역에서의 가장 강한 宗教中心의 傳統이 있는 지역에서는 역시 現代國家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要因이 그 전통에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指摘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G. Myrdal의 Asian Drama) 傳統은 否定的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日本만은 그 傳統과 새로운 新文化를 슬기롭게 調和시킴으로서 現代國家로의 발전에 成功한 例外的인 事例로 평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유교적인 傳統이 여기서도 강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民族固有의 文化傳統이 保存되면서 서구와 類似한 政治 社会的 制度가 발전되어 있어서 일본에서는 固有 傳統이 肯定的인 作用을 해왔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近年에 와서 불과 몇년입니다. 東아시아 地域의 傳統에 대해 새로운 評價가 싹트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韓國을 비롯해서 台灣, 香港, 싱가포르가 이룬 급속한 經濟發展이라는 現象을 보고 그 原因이 될만한 共通的인 要素들을 찾아볼적에 결국 모두 유교문화권에 속하고 있고 유교 倫理와 유교적 制度를 共有한데서 찾을수 밖에 없다고 보게 된것입니다.

美國의 時事週刊誌 뉴스위크(1977)가 「韓國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特輯을 실고서 韓國의 類例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이 유교전통에서 由來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아시는 未來學者 헤르만·칸(Herman Kahn)은 앞으로의 世界經濟의 發展樣相을 展望하는 著

書속에서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도 그런주장을 상당히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韓國에 관한 특집 기사를 다룬 特輯記事속에서 (美 時事週刊誌 Time 1979의 韓國特輯號) 그 成長의 基本要因이 유교전통에서 由來하는 바 크다고 경제적 分析을 하였습니다. 특히 最近에는 時事評論家이며 記者인 맥파커 氏 (R. Mac Farguhar)가 英週刊經濟誌 「이코노미스트」에서 상당히 긴 특집 논설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東아시아 여러 地域의 經濟發展을 分析하고서 그는 역시 이것이 基本的으로는 유교적 傳統과 倫理觀에 基因한다고 断定하고서 한걸음 더 나가서 유교문화권이 장차 西方의 이제까지의 優越的 地位에 대한 重大한 挑戰者가 될 것이라고 示唆까지 하고 있습니다. (" The Post-Confucian Challenge " . The Economist. 1980.2.9 ~ 15) 유교전통에 대한 西方사람들의 가장 적극적인 肯定的인 傳統再評價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파커氏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유교적 倫理는 마치 서구에 있어서의 Protestantism 新教와 資本主義 이 두가지가 요인이 되어서 서구의 근대 국가의 발전을 이룬것 처럼 유교도 동아시아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경제발전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왔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지적한 여러가지 유교적 전통의 肯定的인 요인으로서는 教育尊重, 成就意慾, 勸勉第儉이라든지 家族 및 所屬團體에 대한 歸屬 忠誠心 그리고 個人보다는 團體에 대한 優先, 그리고 秩序 序列의 尊重등등이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유교 理念의 더 깊은 面이 度外視된 點도 있고 또 이런 地域에서의 政治의 理念과 經濟制度 그리고 그에 따른 社會文化的인 要因

들이 경제성장에 미친 要因을 看過하고 있는 결함이 없지는 않으나 다만 그러나 새로운 커다란 視角을 서구에 던져 주었다고 하는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특히 東아시아가 장차 세계에서 단순히 國際關係나 정치적인 面에서 뿐아니라 精神文化的인 面에서 중요한 하나의 中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점에서 앞에서 말한 레비·스트로스의 言及과 다 서로 相通되는 점이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힘과 짐으로서의 전통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東아시아가 위에서 論及된것처럼 유교적 傳統의 힘으로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된 것이 事實이라고 한다면 過去 一世紀동안의 否定的인 評價와 어떻게 관련지워져야 할 것인가가 問題된다고 하겠습니다.

傳統自體는 同一한 事象인데 단지 觀點이 달라진 것인가 또는 지금까지 전통자체가 잠자다가 깨어나서 되살아난 것인가

서구 勢力과 西方文化의 충격을 받음으로써 유교전통에 대한 自信이 특히 知識層에서 줄어들고 드디어는 國家社會의 衰落의 原因이 모두 유교전통에 있었다고까지 批判하는 風潮가 과거에 일어났지마는 그러나 이런속에서도 유교와 그 倫理를 復活, 擴大시키겠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言及하였지마는 清末에 康有爲가 中心이 되어 「孔子教」를 다시 일으켜 이것은 基督教에 비길 수 있는 敎會組織을 國家的 힘으로 일으키자고 하는 主

張을 한바있고 淸廷에서도 이를 挿入하자는 主張이 康有爲의 弟子인 陳煥章을 中心으로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한편으로는 袁世凱의 帝制運動의 精神的 바탕을 이루기도 하였고 바로 이에 대한 반발로서 유교전통에 排擊을 격렬히 부르짖는 知識層의 운동이 전개 되었던 것입니다. 戰前의 國民黨에서도 新生活運動에 있어서 傳統的 유교 倫理를 강조하였지만은 二次大戰의 渦中에서 別般의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中國大陸이 共產化되어 過去의 傳統이 송두리채 뒤 바꾸이는 一大變革이 일어나자 香港 台灣의 學者들 가운데서 中國思想과 傳統의 優秀性을 다시 宣揚하겠다고 하는 努力이 여러모로 이루어져서 예컨대 「中華文化宣言」이러한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958년에 唐君毅 徐復觀, 張君勱, 牟宗三이 共同名義로) 유교의 倫理와 傳統의 復興을 指向하는 운동으로서 國家의 뒷받침을 받는 孔孟學會의 活動이 展開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一九六二年 創立 會長 陳立夫)

그러나 대체로 봐서 유교倫理가 동북아시아人들 사이에 살아 있어서 이것이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바탕이 되고 있다면 이는 이러한 一部 학자나 知識層의 意識的인 復興努力의 德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오랜 時日에 걸쳐서 敎育과 生活을 통해서 민중의 意識과 生活속에 뿌리깊게 갈려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倫理와 觀念은 近代의 西方文化의 導入에도 불구하고 크게 變化하지 않고 그리고 몇몇 人들만의 復興 努力에 의해서도 그다지 더 高揚되지도 않는 그런 深層의 生活倫理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狀況은 中國이나 韓國이나 日本이나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

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傳統이란것은 본래 持續性을 지닌 文化遺産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현재 現象이 아무리 넓고 깊게 民族이나 국민사이에 퍼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一時的인 現象으로 그친다면 전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過去의 어떤 要素가 역시 넓고 깊게 퍼져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消滅되어서 民族의 記憶에도 남아있지 않고 단지 記錄에만 남아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역시 이것을 현재의 傳統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읍니다. 오래 持續된 傳統일수록 더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傳統을 構成하는 여러 要素들 가운데는 이를 지닌 사람이 그 要素에 대한 自覺과 正當性 與否의 판단을 가진 것도 있고 안 가진 것도 있다 하겠읍니다. 가령 慣習的 生活方式든지 風習이라든지 儀禮 그리고 氣質・性格 이런 것은 본래 起源的으로는 意味와 價値觀이 作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傳統으로서 내려옴으로서 그것이 꼭 正常하나 正常하지 않느냐 하는 觀念은 없이 그대로 踏襲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에 反해서 政治的・社会的・文化的 遺産들 예컨대 政治制度라든지 國際關係 그리고 學問, 藝術, 技術 이런 傳統文化에 대해서는 이것이 自己내의 傳統이라는 自覺과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正當性 與否에 대한 觀念을 갖게 된다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강하게 自覺되고 正當性 與否가 意識되는 그런 要素가 바로 規範이라고 보겠읍니다.

즉 우리의 行動과 思考의 對人關係 및 社會를 規制하는 倫理觀으로서의 傳統 이것이 전통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부문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自覺이되어 있고 또 正當性的 뒷받침은 받

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어긋났을 때에는 有形・無形の 外的인 制裁를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B.F Hoselitz, Tradition and Economic Growth)

이러한 분석은 크게 여기 말씀드린 Hoselitz 에 힘 입은 바가 많습니다. 傳統에는 이렇게 持續性和 現在性이 前提가 되고 그위에 意識과 價値觀의 關聯與否에 따라서 自覺性和 正當性이 內在해 있는 要素도 있고 그렇지 않는 要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自覺性和 正當性이 강한 要素일수록 變化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어떤 要素이든 傳統은 固定不動의 것이 아니며 可變性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造成・助長 될수도 있고 復活・調整・變形・抑制・廢棄도 可能한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것입니다. 勿論 이런경우에 어떤 政治家나 歷史家의 唱導로서 人爲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狀況이라든지 條件들의 造成과 構成員 大多數의 共感이라는 것이 前提가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過去の 傳統을 되살리려는 試圖가 현재에도 진행되는 例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령 이란에서 革命指導者 호메이니가 이슬람 傳統의 극단한 復活을 主軸으로 하는 國家建設의 시대착오적이고 상황무시한 시도가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歷史上에서도 傳統을 되살리려다 失敗한 현저한 例로 19世紀의 회람, 19C 初半의 그리이스를 흔히 듭니다. 터어키帝國의 植民統治로부터 獨立을 獲得한 新生그리이스가 過去の 古典그리스文化와 비잔틴帝國의 번영 이것을 再現하려고 오직 古典고유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古典法典을 살려가지고 그것을 현재에 그대로 쓰려고하

고 무모한 領土擴張을 피하다가 끝내 유럽의 가장 弱國의 하나로 떨어진 例가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過去 歷史속의 희미한 事象을 強力한 新傳統으로 復舊·擴大하여 樹立하는데 成功한 例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中國에서 孔子가 夏·殷, 周 三代의 德治 특히 周公의 理想과 禮를 되살린다는 旗幟아래서 없어진 傳統을 復活 再生할 뿐 아니라 再構成·擴大하여 유가사상으로 確立시켜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新傳統을 만든것은 그런 예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近世 日本에서 明治維新의 指導者들이 過去 7세기동안 武人政權아래에서 단지 形式上, 儀禮上의 희미한 存在에 지나지 않던 天皇制를 다시 擴大, 復古하여 天皇을 絶對的인 存在로 崇拜하는 新傳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일단 成功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이 天皇制가 여러가지 원인중의 하나가 되어 二次大戰으로 敗戰과 民主化로 이끌어졌다고 하지는 않는 그러나 一世紀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종의 擬制傳統이라고 할까 이것은 아직도 일본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 것이다.

(拙稿「傳統의 意味」1974)

이런 문제들은 일찌기 제가 이야기 한것들을 그대로 다른 농교에서 요약한 것들입니다.

傳統은 可變性을 가지고 있지만은 一律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風習中의 衣食住 가운데서도 가령 김치같은 것은 어디서나 그대로 우리가 固執하고 있지만 男子衣服 같은 것은 쉽게 洋服으로 바뀌어지고 住宅같은것도 외모와 구조는 農村에서까지도 그 變化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생활하는데에 房의 온돌같은 것은 도시의 高層아파트에서도 이를 그대로 固守하게 되는 겁니다

自覺性和 正統성에 關聯이 稀薄한 이런 慣習의 部面에서는 變化하든지 固守하든지 모두가 별로 意識上의 抵抗이 없이 편리와 嗜好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傳統文化和 傳統規範의 部面에서는 그것이 自覺性和 正統性を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傳統으로서도 強力한 作用을 하거나와 그만큼 變化에 대해서도 더 抵抗의 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制度・思想・倫理・文化活動 모두가 서로 有機的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部門에 대한 變化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고, 또 反對로 어느 한 部面에 대한 強力한 變化作用은 他部門에 대한 變化를 必然的으로 쉽게 誘發하는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現代社會와 儒敎傳統>

現代國家와 現代社會를 이룩하는데에 아시아의 傳統은 障礙가 되는 要因을 너무 많이 內包하고 있고 따라서 傳統의 많은 部分을 除去 내지 改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二十世紀에 들어와서 많은 改革者・知識人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또 그런 努力으로서 西洋의 合理主義 思想이고 政治・經濟・社會의 制度, 科學과 産業의 技術이 導入되어 왔고 이로 인해서 國家와 社會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現代社會와 아시아의 傳統 이 두가지는 서로 兩立하기 어려운 對立 概念으로 이해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一九五〇年代와 六〇年代에 이른바 「近代化」의 論議가 活發했을 때까지도 傳統의 인 生活方式과 制度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調整 克服해가지고 現代國家를 이룩해야 한다는 論議가 집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一世紀동안의 아시아의 傳統에 대한 그러한 一般의 人 否定적인 評價에도 불구하고 그 傳統은 아시아의 어느 地域에

서도 놀라울만큼 潛在的 또는 顯在的으로 存續되어 왔다고 하는것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까. 西洋의 文化와 文明을 가장 많이 攝取한 日本에서도 그 전통이 현재에도 깊이 뿌리박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中共에서조차도 共產國家로서는 傳統的인 要素가 그네들의 理念이나 制度 및 運營면에 있어서 씻을 수 없이 남아 있다고 보는 見解가 많습니다. 北韓에서조차도 統治者에 대한 무조건의 「忠誠」이나 그의 「萬壽無疆」을 强要하는 思考나 王朝世襲의인 權力移讓의 時代錯誤的인 발상이 전통사조의 殘滓에서 由來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發展과 變化가 적었던 西南亞나 東南亞의 餘他の 곳에서 그리고 宗教의 힘이 강하게 作用하고 있는 곳에서 過去의 傳統이 아직도 크게 살아남아 있음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까.

西歐화와 工業化를 主軸으로 하는 近代化의 過程에서도 그리고 傳統에 대한 不斷한 抑制努力에도 不拘하고 傳統的 要素들은 끈질기게 남아온 면이 있습니다. 七〇年代에 들어와서 儒敎傳統 및 儒敎倫理가 經濟發展과 연관지워져서 論議되기 시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즘의 논의의 底邊에는 이런 끈질긴 전통의 힘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까.

現代는 科學技術의 유례없는 발전과 이에 따른 급격하고 廣範한 社會變化를 몰아오고 있고 이런 變化는 그 幅과 速度에 있어서 장차는 아마도 현재에 비길수 없이 더 빠르고 더 넓은것으로 생각됩니다. 人類의 全 歷史를 農業시대와 그리고 그를 이은 工業시대들로 나누고 앞으로의 時代를 情報・電子技術・宇宙發展등을 主軸으로 한 「第三의 물결」(The Third Wave)의 시대로 區劃하는 알빈・토플러(A.Toffler)의 展望도 앞으로의 社會가 傳統에 관

계없이 從來와는 全面的으로 다른 社會로 變化되어 간다는 見解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人類社會와 人類文化는 장차 급속도로 하나의 方向, 同一한 類型을 指向해서 變化되어 나갈 것임은 推測키 어렵지 않습니다.

現在의 工業社會를 이룩하는데에 主導的 役割을 하였고 未來社會를 展開하는데에 있어서도 역시 主要한 役割을 하게 되리라고 보이는 西方社會도 그들 自身の 從來의 傳統과는 크게 달라진 未來社會를 이룩하게 될것으로 보이고, 餘他的 社會들은 勿論 各자의 傳統과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相異한 未來 社會로 進入해 나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장차의 人類社會가 지혜와 技術을 동원해서 人口, 에너지, 原料, 食糧 그리고 公害등의 중대한 문제들을 能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展望도 가령 Kahn 같은 사람이 (H. Kahn, The Next 200 Years) 하고 있지만 그러나 物質主義·人間疎外·倫理喪失등 이미 현재에도 심각해지고 있는 人間の 精神的 諸問題들은 어떤 새로운 宗教的·精神的인 原理와 運動들이 人類全體에 받아들여지면서 나오기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現在社會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精神과 社會의 여러 問題들이 앞으로 더욱 급속한 발전과 變化를 겪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이며, 이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傳統의 문제는 깊은 考察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傳統은 어느 민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랜 歷史와 여러 갈래의 文化의 蓄積과 組合 그리고 交互作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慣習과 生活方式 文化와 制度 그리고 思想과 倫理가 歷史의 여러 단계와 狀況에 따라 形成되어 오면서 가장 基層的인 自然信仰이나 그밖에 道敎思想, 佛敎思想, 儒敎思想등으로 부터 造成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장차에는 아마도 基督教의 思想과 文化도 우리 傳統의 한 要素를 이룰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갈래 源泉가운데서 가장 廣範하고 깊은 影響을 끼쳐 온것이 儒敎의 思想과 倫理였으며 이것은 過去 一千年 동안의 接觸에다가 지난 三世紀동안의 類例드문 集中的 信奉과 敎育의 結果였다고 하겠습니다. 儒敎思想과 儒敎倫理는 오늘날에도 西洋文化의 깊은 浸透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思考와 生活에 깊이 깔려 있고 아마도 東北아시아의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서보다도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儒敎的 傳統의 이러한 存續때문에 近代 國家로의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오던 바가 있었으며, 그것이 近年에 들어와서는 아까 말한대로 오히려 그 存續 德澤으로 급속한 經濟發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儒敎思想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視角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筆者는 유교사상의 特性을 다음의 네가지로 잡아서 試論한 일이 있습니다. (拙稿 「儒敎思想의 特質—한 試論—」 一九六九) 첫째는 「現世肯定」이라는 면에서 現世가 終局的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는 救世主는 必要없고 오직 스승 즉(孔子)가 있을 따름이고, 둘째는 「仁和孝의 道德」의 강조로서 道

德과 名分・廉恥・禮節이 어느 宗教에서보다 中心的인 가르침으로 강조되고 있고, 셋째로 「德治主義」이라는 이름을 붙였음니다만 現世肯定의 바탕위에서 道德君子의 自己修養과 함께 積極的인 政治參與와 道德政治가 강조되고 있으며 한편 人間關係와 社會組織에 있어서의 階層 秩序 觀念이 여기에 强하게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넷째번 「人文重視」라고해서 敎育과 學問을 유례 드물게 勸獎 強調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와 다른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傳統도 그것이 傳統으로 固定되고 나면 保守的이 되고 現狀維持的인 성격을 띠게 되며 單純 反覆的인 것이 되기 때문에 現實改革의 緊張感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改革의 時機에 는 저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變革과 이에 따른 混亂을 견제하는 데에는 傳統의 힘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過去의 傳統으로 단순히 復古하기란 이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거니와 또한 可能하지도 않다고 보겠습니다. 傳統의 調整, 選擇이 不可避할 것이며, 必要할 때에는 말하자면 再創造를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傳統은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可變性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儒敎思想의 特性이라고 舉論한 앞의 事項들이 모두 現代社會나 또는 未來社會에 있어서 되살려야 할 要素가 되지 못함은 말할것 없겠습니다. 近代化에 있어서 저해적이었다고 흔히 지적되어 왔던 여러가지 特性들은 現代社會에 있어서도 打破되고 除去되도록 努力해야할 要素들입니다.

가령 階層的, 差別的 序列의 觀念이라든지 이에 따른 倫理觀이 역시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고 또 이런데에서도 勞動에 대한 輕視와 蔑視 그 바탕이 되는 差別的인 職業觀에서는 물론 脫皮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家族, 氏族이나 團體의 特殊關係 倫理의 너무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서 普遍關係의 倫理가 소홀히 된다는 점도 물론 현대또는 미래사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으며 是正되어야 하는 것들은 널리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現代의 工業社會가 물고온 物質主義·人間疎外·倫理喪失의 메마른 狀況속에서 人間社會에 潤氣를 불어넣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도 儒敎傳統의 또 다른 측면을 再創造로서 의미를 살려 나갈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物質과 機械 그리고 非人間化된 組織이 지배하는 속에서의 人間 本位的인 傳統을 되살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人間關係에 있어서 利害를 爲主로한 風潮에서 부터 倫理와 信義와 名分과 禮儀와 廉恥를 爲主로 하는 관계로의 回復이요, 敎育을 重視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知識과 技能의 전달이 아닌 傳統의인 「스승」관계의 再定立을 위한 努力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現代社會에서도 瓦解되어가는 家族制度和 家族倫理를 根本的으로 再創造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家族關係에 있어서 過去의 大家族制는 이미 夫婦와 子女를 中心으로한 核家族으로 크게 轉換되어가고 있는것이 우리사회에서도 보입니다. 그 轉換에 따른 문제와 그리고 그 核家族自體의 문제도 우리 社會에서 多樣하고 廣範하게 露呈되어 가고 있습니다. 美國을 비롯한 工業社會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核家族조차

도 解體되어서 또 다른형태의 가족으로 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夫婦가 전혀 따로 살고 있으면서 夫婦라하든지, 이혼했다
든지 하는것 뿐 아니라 독신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해서 상당한 퍼
센트를 차지하고 또는 동성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또 부부가 직업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거하
면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 또는 전자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집
에 앉아서 직장에 나가서 하는일을 하게되는 경우가 지금 미래사
회에서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의 가족 성도덕의
변화등등 이러한 것이 많이 달라진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더욱 加速化되는 가운데 從來에도 이미 많이 許
容的이던. 倫理觀을 이보다도 더 개방적으로 해야 한다고 토푸러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면도 있습니다. (예컨데 上기한
「第三의 물결」)

現代社會에 있어서 그리고 未來社會에 있어서도 우리의 傳統 특
히 그중에서도 유교적 傳統의 어떤 部面은 再創造를 통해서 우리
社會에 대해서 뿐 아니라 人類社會에 대해서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